

“시민과 예술로 광주 백년 미래 설계”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 출범
문화예술 생태계 진단·미래 모색
집단지성 매개 협력 체계 구축하
“문화정책 전환 중심도시 돼야”

‘예술로 백년 미래를 설계한다’.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포럼)이 16일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가 자유로운 도시’ 등 핵심 과제를 제시하며 공식출범했다.
포럼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회원들은 최근 동구 예술이 백그라운드에서 포럼 발족을 위한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들은 광주 예술 유통망 붕괴와 공연공간 및 예산 부족 등 광주 문화예술 생태계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방안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포럼을 결성했다.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식 출범한 이날 포럼은 예술의 힘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집단지성을 매개로 시민과 예술인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는 실천을 통해 광주의 백년 미래를 디자인한다”며 “예술의 힘으로 시민과 함께 문화중심도시의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무등현대미술관 관장인 정송규 작가와 전 광주미술협회장 김초 정광주 서예가가 격려사를 했으며 명진 광주시의회 교문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예술로 백년 미래를 설계한다’를 비전으로 내건 문화융성포럼은 광주 예술성과 민주적 시민정신을 결합한 문화운동을 제시했다. 특히 선진국 예술문화 방향성에 비추볼 때 작금의 신산업은 예술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관광산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문화강국론’을 기반으로, 광주가 문화정책 전환의 중심 도시가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특히 문화예산 확대를 비롯해 예술인 기본소득, 디지털 콘텐츠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국가 문화정책 기조와 연계된 실천이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이 16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공식 출범했다. <광주예술문화융성포럼 제공>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포럼은 예술을 도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삶의 방식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3개 방향과 9개 과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 광주’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 밝힌 문화도시 실현은 크게 3개 방향으로 집약된다.

먼저 예술인의 창작과 발표가 자유로운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작허브 및 문화누리터 조성, 지역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럼은 “폐산업시설, 빈 상가 등을 예술공간으로 전환해 작업과 주거를 통합한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포털을 연계한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지원제도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청-집행-평가’ 등 전 과정의 공정성 강화와 예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민과 예술인이 협력하는 집단지성 체계 구축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정하고 재원을 조성하는 시민참여예산제 및 ESG문화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또한 중위소득

이하 예술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 필요성도 거론됐다.

세대연결형 예술교육도 문화융성을 위해 필요한 방안 가운데 하나다. 멘토링 기반의 지역예술인 교육, 시민문화 역량 강화에도 역점을 뒀, 예술과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포럼은 문화강국 시대를 선도할 광주형 모델로 K-컬처 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또한 비엔날레, 미술관, 작가 작업실을 잇는 체감형 투어로 예술문화 관광루트를 구축할 것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예술플랫폼 개발도 필요한 부분이다. 포럼은 “AI·XR 기반 메타버스 전시를 비롯해 NFT 유통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포럼에 참석한 장현우 화가는 “문화예술과 융합한 관광산업이 미래 광주를 견인할 중요한 신산업이 아닐까 싶다”며 “인공지능, 기술미디어 등과 연계함으로써 예술이 ‘표현’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치매 아내·암 투병 남편의 ‘늦은 행복’

극단 Y 연극 ‘늦은 행복’ 26~28일 동구 미로극장2관

치매에 걸린 아내와 암 투병 중인 남편.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이들은 마치 처음 연애를 시작하듯 매일 공연에서 산책을 한다. 고된 삶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행복이 뒤늦게 노부부에게 찾아온다.

극단 Y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광주 동구 미로극장2관에서 연극 ‘늦은 행복’을 선보인다(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6시). 이번 공연은 2025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초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의 삶을 들여다보며 가족, 치매, 사랑, 존엄성 등 깊은 사회적 질문을 던진다.

작품은 치매에 걸린 아내와 암 투병 중인 남편이 매일 공연에서 서로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서로를 잊고, 때로는 다시 사랑하는 노부부의 일상이 담담한 어조로 그려지며 깊은 울림을 자아낸다. 젊은 시절 서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한 회한, 자식을 키우며 생긴 갈등,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현실 속에서 이들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이야말로 행복임을 깨닫는다.

작품은 대가족의 해체, 홀로 남겨진 노년의 외로움, 자식과의 거리감 등 초고령 사회가 안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며, 관객에게 ‘행복은 과연 언제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노부부의 사랑을 담은 연극 ‘늦은 행복’이 오는 26~28일 광주 동구 미로극장에서 펼쳐진다. <극단Y 제공>

김민호 연출가는 “이번 공연은 노년의 삶과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직관적이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냈다”며 “관객들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극단Y는 연인 관객을 위한 현장 5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로 추억하는 ‘연탄 시절’

광양 출신 박래균 시인 ‘나는 따뜻한 연탄 대통령입니다’ 펴내

광양 출신 박래균 시인이 두 번째 시집 ‘나는 따뜻한 연탄 대통령입니다’(한림출판)를 펴냈다. 시인이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60여 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특히 ‘연탄’을 모티브로 한 시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박 시인은 시집을 펴낸 배경에 대해 “어릴 적 겨울은 무척이나 추웠는데 밥 굶는 것보다 더 싫었다”며 “그나마 추운 날들을 꼭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털실로 짜주신 털옷과 아버지께서 들여놓은 연탄이 전부였다”고 전했다.

“들꽃처럼/ 용기종기 모여 살고// 찔뚱처럼/ 딱딱따닥 불어사는/ 추운 사람/ 추운 집들// 그때고 때 갔다 때도/ 봄 때가져 줄지 않고/ 자꾸자꾸 생각나는/ 연탄 화수문”

위 시 ‘연탄 화수문’은 한 겨울 내내 연탄을 때고



도 줄지 않고 생각나는 연탄의 이미지를 묘사한 작품이다. 지금의 기성세대들은 한번쯤 겪었을 법한 에피소드를 형상화했다.

많은 이들이 경기 악화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욱이 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서는 마음이 추운 이들이 적지 않다. 따뜻한

연탄이 생각나고, ‘연탄 같은’ 지도자가 그리워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시인은 “세상은 딱하고 어수선하다”며 “연탄처럼 따뜻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전통음악+인문학 ‘해설 있는 풍류음악회’

국립남도국악원 25일 ‘한국전쟁과 음악’…월북 음악가 이야기 등

전통음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강연형 공연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가 상반기 마지막 무대를 연다.

국립남도국악원(국악원)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전남 진도군 옥주골 창작소에서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 상반기 마지막 회차로, 6·25전쟁일을 맞아 ‘한국전쟁과 음악’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공연의 강연자는 음악학자 이경본 박사.

독일 마르부르크대에서 음악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수용소와 음악’, ‘망명음악 나치음악’ 등의 저서를 발간하는 등 전쟁과 음악의 교차점에 대한 연구를 펼쳐왔다. 이날 이 박사는 한국전쟁 속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쟁 포로의 노래, 월북 음악가의 이야기 등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공연은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무대로 함께 꾸며진다. 판소리 ‘적벽가’ 중 군사설움 대목(이건

호), 태평소 ‘능계가락’ (변정섭), ‘아리랑타령’과 ‘노들강변’ (정유정) 등이 강의와 함께 어우러진다. 시청각 자료도 함께 활용돼 이해도를 높인다.

박정경 국립남도국악원 원장은 “해설이 있는 풍류음악회는 국악과 인문학이 만나는 자리로, 시민들이 전통예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공연은 상반기 마지막 회차이자 한국전쟁 발발일에 맞춰 열리는 만큼, 국악을 통해 현대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이 가진 위로와 성찰의 힘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람료 무료, 국악원 전화 예매. 선착순 30명.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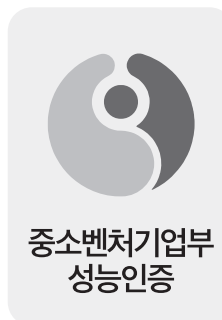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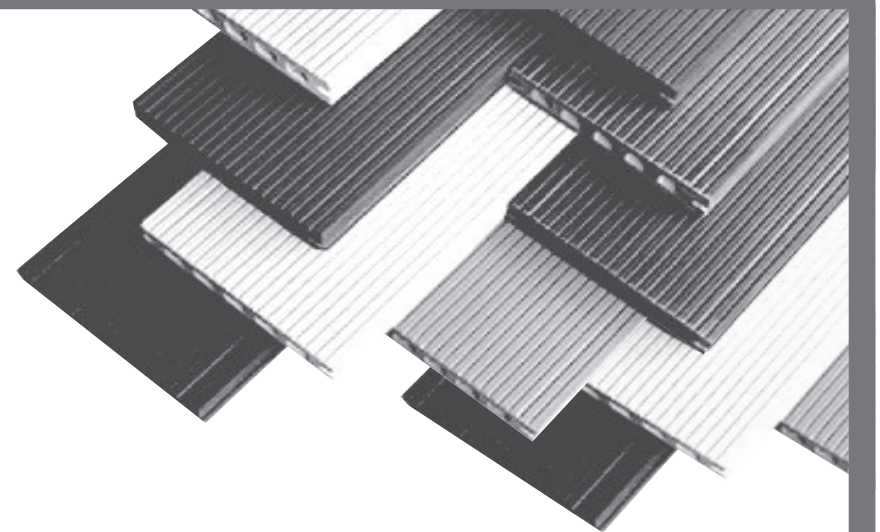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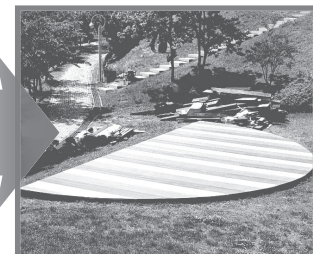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